

# “업에 의해 성인도 되고 범부도 된다”

“무시(無始) 이래로 오늘과 다르지 않아, 다른 법이 없다. 그러므로 정등각(正等覺)을 성취했다고 하는 것이다.”

성취해야 할 정등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그림자에 나가떨어지지 않는다. 일체 그림자를 만들기는 하지만, 본래 그 자리에는 한 그림자도 만들어진 적이 없는 줄 알기 때문이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죽(?)’이란 무슨 도리입니까?”  
“너는 무슨 도리를 찾는 것이냐? 어떤 도리라도 있다면, 곧 본래의 마음과는 어긋난다.”

마음에 즉(卽)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다. 또 다른 부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본래 성품자리에 범·성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성품을 봤기 때문에, 부처의 성품이나 중생의 성품이 본래 둘이 아닌 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깨달을 때, 또 다른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중심을 가지고 늘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성취한 자가 귀한 것이다.

범·성이라 하는 것은 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깨닫고 못 깨닫고 관계없이, 업에 의해서 성인도 되고 범부도 되는 것이다. 범부든 성인이든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허망한 그림자에 속아서, 어디로 떠날려 갈지 모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앞서 말씀하신 ‘무시 이래로 오늘과 다르지 않다.’고 하신 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단지 찾기 때문에, 네 스스로 그것과 어긋나는 것이니라. 네가 만약 찾지 않는다면, 어디에 다들 것이 있었는가?”

찾고 구하니까, 어긋나는 것이다. 내버려두면 사용해온 그대로 흘러갈 것인데, 무엇이 더 있다고 허망한 것을 할까. 이런 범문도 배후가 깨달았으니까 해결 수 있는 것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무기(無記)에 떨어지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저 지레를 한다. 배후가 근본 실상을 봤다고 보기 때문에, 황백 스님도 찾고 구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다.

“이미 다르지 않다면, 굳이 ‘죽’이라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만약 범성을 차별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에게 ‘죽’이라 말하겠는가? ‘죽’이 만약 ‘죽’이 아니라면, 마음 또한 마음이 아니다. 만일 마음과 ‘죽’을 모두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어디로 찾아 나서겠는가?”

처음부터 찾고 구하는 것이 없다면, ‘죽’이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찾고 구하고 범·성을 나누는 상대에게 말로 설명하려고 빌린

## 수불 스님의 전심범요 선해 (22)



범어사 주지

본래 성품자리 ‘범·성’ 없이 그 도리 깨달아야 속지 않아

‘이심전심’이란

말로 표현한 인연의 흐름

마음은 전해 줄 수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다

“무엇으로 망념을 쫓나”

“없애려 하면 그 또한 망념

망념은 본래 뿌리없으나

분별때문에 생긴다”

‘범·성’에 집착 않는다면

망념은 자연히 사라져

“두 팔을 다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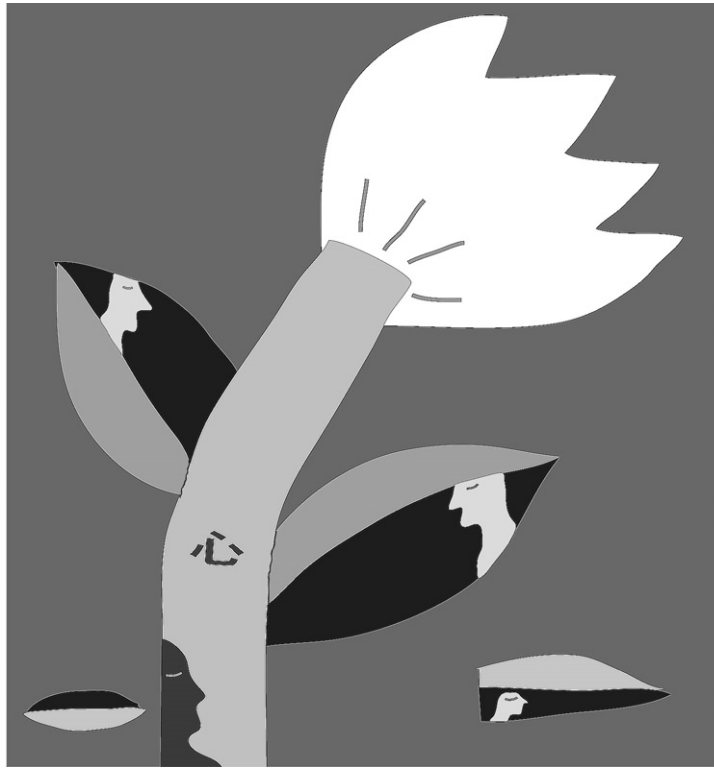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표현이 ‘죽’인 것이다.

### 이심전심

‘이심전심’이라고 했지만, 마음은 전해 줄 수 있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연의 흐름을 말로 표현한 것이 “주고받다”일 뿐이다.

배후가 여쭙었다.  
“망념이 자신의 마음을 가로막는다면, 무엇으로써 망념을 쫓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고하고 있다. 반면, 공부된 사람은 망념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도 자기 안에서 계속 그림자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선 지식에게 묻는 것이다.

“망념이 일어날 때, 그것을 없애려 하면 그것 또한 망념이 된다. 망념은 본래 뿌리가 없지만, 다만 분별 때문에 생긴다. 네가 다만 범·성의 양면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망념은 사라지는데, 어찌 그것을 떨쳐 버리려 하는가? 털끝만큼도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으면, 이것을 일컬어 ‘내가 두 팔을 다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라.’고 하는 것이다.”

한 생각 일으킨 것이 천차만별의 모양을 만들어냈다. 상대적인 차별을 벗어던지고 양면을 버리면, 망념은 본래 없는 것이다. 버리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대로 보면 되는 것이지만, 이미 분별해서 일어난 입장에서 ‘버린다’는 말을 빌려 쓰는 것이다. 두 팔을 버리고 부처를 이룬 이야기는 <법화경>의 ‘약왕보살본사품’에 나온다. 약왕보살의 전신은 일월정명덕 부처님께 두 팔을 대위 공양을

리면서 부처가 되리라 서원했다는 치열한 구도담이다.

“이미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다면, 어떻게 서로 이어받습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마음으로 서로 전한다면, 어찌 마음 또한 없다고 하십니까?”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전한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이 마음을 요달하면, 곧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이것은 유·무를 초월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양을 드러내기도 하고, 싹 씹어서 없애버리기도 했다.

“마음도 법도 없다면, 어찌하여 전한다고 하십니까?”  
“너는 마음으로 전한다는 말을 듣고는, 얻을 만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조사께서는, ‘마음의 성품을 깨달을 때, 불가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끝내 무소독이니, 얻을 바가 있다면 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셨다. 만약 이 일을 그대가 알게끔 일러준다 해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역대 조사들이 전해주고 받았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인가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기가 본 성품이 분명하면, 나머지는 힘들이지 않아도 알아서 따라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전해주고 받는 일에 어려서게 마음 쓰지 않는다. 시간에 맡기고 지나다보면 저절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다가 그만 동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다. 스스로 찾아가도록 흐름에 맡기되, 그때때로 정신 차리고 지혜롭게 살면 된다.

##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 저는 이제 기꺼이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합니다

〈관무량수경〉

#### 시대와 신심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토신앙은 현대인들에게는 믿고 행하기 어려운 범문인 것만 같다. 정히 정토사상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이다. 정토신앙에서는 아미타불의 이름을 불러서, 혹은 아미타불의 본원을 믿음으로써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 아미타로 행하기 쉬운 길(易行道)이라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현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난行道(難行道)로 인식되는 것일까? 현대의 시대정신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는 합리성을 추구한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해되어야 비로소 믿는다. 2 더하기 5는 7이다. 이런 수학은 그러한 합리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예가 될 것이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분별이아말로 현대를 낳은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사후에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난다는, 이런 말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아서 ‘그렇다’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극락에 가봐야 그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데, 현재 살아있으면서 사후의 극락을 동시에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까닭에 사후의 극락세계를 말하는 정토신앙이 난行道가 되고 마는 것이다. 저 옛날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지옥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이토록 업이 많은데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라면서 벌벌 떨었다. 남쪽으로 저 바다 건너 어딘가에 관세음보살의 보타락가산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그곳에 가려고 배를 띄워서 바다를 건너갔다.

현대에 이르러, 결국 우리는 그러한 ‘신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분별’을 얻은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더 행복해진 것일까? 저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신심, 그 마음을 나는 ‘중세의 마음’이라 불러본다. 그런 ‘중세의 마음’이 새삼스럽다. 그 속에서야말로, 지금 현대인들이 잃어버렸던 우리의 맨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그 ‘중세의 마음’이 현대인들의 갖가지 병들을 치유해주는 것은 아닐까.

#### 정토사상의 어머니

<무량수경>, <아미타경>, 그리고 <관무량수경>을 정토삼부경이라 부른다. 성립 시적으로 볼 때나, 사상적으로 볼 때 <무량수경>이 출발점이 된다. <아미타경>은 <무량수경>을 요약한 것이라 말해서 좋으

리라. 그럼 <관무량수경>은 어떤 성격의 경전일까?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을 포괄하고 요약하면서, 그 경전에서 말해지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을 보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보충하는 측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극락사상의 출생을 알게 하는 이야기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정토신앙을 낳은 어머니는 무엇일까? <무량수경> 하권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현재의 고통이다. 이를 <관무량수경>에서는 극적인 이야기로 제시한다.

아사세는 아버지 범비사라왕을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하는 패륜(悖倫)을 범하였다. 육에 갇힌 남편을 위하여, 몸에 쫓을



그림 · 박구원

발라서 먹게 한 것이 위제의 부인이다. 아사세는 그러한 어머니의 행위에 분노하여, 어머니를 죽이려 하다가 “아버지를 죽인 왕들은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를 죽인 왕은 없다”는 충언을 듣고서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육에 가둔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위제의 부인은, 왕궁의 감옥에 출현하신 부처님 앞에서 서원한다. “고뇌가 없는 곳으로 가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위제의 부인이 겪은 것과 같은, 그런 극한적 고통 속에서 놓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역시 그러한 고통이 없는 또 다른 이상세계를 그리워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비원(悲願)이 바로 정토신앙을 낳았다. 그러한 원망(願望)이 극락을 믿게 한다. 만에 하나, 정말 극락이 없다면, 극락을 만들어서라도 그 ‘섬’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시 이러한 고통에 태어나고 싶은 것일까? 극한의 고통은 극한의 기쁨을 꿈꾸게 한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안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 신부 출가의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아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명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